일부 치위생과 학생의 국가시험 스트레스 연구

박일순 · 김혜진¹경동대학교 치위생학과 · ¹송호대학 치위생과

Research on some of dental hygiene students' stress over the national examination

Il-Soon Park · Hye-Jin Kim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KyungDong University ·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college

Received : 15 March, 2013

Revised : 19 June, 2013

Accepted : 6 August, 2013

Corresponding Author

Hye-Jin Kim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ong-Ho College

Namsan-ri 66 Beon-gi

Hoengseong-gun, Ganwon-Do

255-704, Korea.

Tel : + 82-10-9227-7694

FAX : + 82-33-639-0678

E-mail : khyejin1027@hanmail.net

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stress driven by the national examination and to find out correlation between stress factors and students' general characteristics.**Methods** :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by dental hygiene students in D university in February, 2012.**Results** : Those having good high school GPAs ($p < .05$) and high preliminary test scores ($p < .01$) towards dental hygienist ($p < .05$). National license examination was the most stressful factor for 54.2% of the students. Much more stressful pressure goes to students of non-scheduled admission ($p < .01$), students who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p < .01$), students with good high school GPAs ($p < .05$), and having high preliminary test scores ($p < .05$). Most of the students tended to bear the burden on national written examination with an average of 4.17. The most difficult subject was oral biology introduction (average 4.52). Oral biology introduction was more stressful to students of early admission, students graduating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p < .05$), students with good high school GPAs ($p < .05$), and students who had relatively low preliminary test scores ($p < .001$).**Conclusions** : It is crucial to reduce stress factors and to develop related programs.**Key Words** : dental hygiene students, national written examination, stress**색인** : 국가시험, 스트레스, 치위생과 학생

서론

한국에서는 1965년 치과위생사 교육이 시작된 이후 급격한 사회의 변화 및 경제성장과 함께 치위생 분야 역시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는 특히 치과위생사 양성의 양적인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치과위생사 교육이 대학으로 편입된 이후 1994년에는 학제가 2년제에서 3년제로 연장되었으며, 최근에는 4년제 치위생학과와 급속한 증설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양적 팽창으로 인해 치과위생사의 인력수급과 치위생

교육의 질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¹⁾. 치위생 교육은 치위생과 학생들을 졸업 후 치과영역에서 예방치치와 진료협조 및 구강보건교육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구강보건인력으로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임상실습으로 대별되며 실제 임상실습에 임하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심리적인 부담감과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2,3)}. 뿐만 아니라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 치과위생사 면허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⁴⁾.

스트레스의 원인은 정신적요인, 사회적 요인, 환경적 요인, 자기지각 및 자아개념, 인격으로 구분된다⁵⁾. 한 개인이 어떤 특정

상황에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이러한 상황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게 되며 특정 환경이 개체와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불안을 야기 시키며, 환경적 요인으로 시험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⁶⁾.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학업, 인간관계, 진로 및 취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Ang과 Huan⁸⁾은 싱가포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학업 스트레스와 자살 사이에서 우울증이 부분 매개한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이는 학업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역기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종 시험은 대학생들의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스스로의 자존감을 저하시켜, 정신장애 발생의 위협요소가 되고 있다⁹⁾.

강¹⁰⁾의 연구에서 간호과 학생들은 국가시험을 치르기 전 잦은 모의고사, 시험에 대한 정보부족, 학교수업과 임상실습의 병행으로 인한 체력적 부담, 공부 시간의 부족, 많은 분량의 과제물, 교과과정 외의 특강 등으로 많이 지치고 힘들어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¹⁰⁾의 연구에서는 간호과 학생의 스트레스 주요 내용을 질문한 결과 4학년 학생은 간호사 국가시험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4학년 학생에서만 부상되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치위생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로 근무하기 위해서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더구나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은 필기시험뿐만 아니라 실기시험까지 병행하고 있어 그 스트레스는 간호과 학생들보다 더 클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임¹¹⁾의 연구결과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은 재학 중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보건전문인력인 치과위생사로서 갖추어야 할 필수 요인인 지식과 태도를 갖추기 위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였다. 각종 자격증 취득 및 취직시험은 한 개인의 일생에 중요한 계기가 되므로 이와 같은 시험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시험불안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¹²⁾.

그러나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임상실습과 같은 실습수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주로 다루고 있으며¹³⁾, 국가시험을 치르게 될 수험생의 위치에서 받게 되는 치위생학과 학생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최근에서야 일부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고 있을 뿐이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여 스트레스 요인을 최소화

시켜주고, 현장담당 교육자들이 학생들의 국가시험에 대한 교육방향의 계획과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방 D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시험 스트레스와 직접적 연관성을 가지는 요소로 판단되는 대학입학성적, 출신고교,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조사는 2012년 2월 D대학 치위생과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기간은 졸업 전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 진행되었으며, 본 조사에 앞서 학생들에게 조사연구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한 후 시행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본 연구자가 연구대상자에게 직접 나누어준 다음 설문지 작성요령을 자세히 설명하고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여 수거하는 형태를 취하였다. 자료수집에는 총 127부의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미비하여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7부를 제외하고 120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연구도구는 관련 선행연구들을 기초로 본 연구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설문은 입학 전 근무경험 및 출신고교, 대학 입학 시 입학전형에 관한 3문항, 종교 유무,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자가 인식도 각각 1문항, 국가시험 스트레스 정도 2문항 및 스트레스원 1문항 등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국시과목별 스트레스 정도는 5개의 분야별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매우 받음에 5점, 매우 받지 않음에 1점을 부여 측정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2.2. 측정도구의 신뢰도

본 연구를 위한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Confidence in measurement tool

Variable	The number of questions	Alpha
Stress over the national exam	2	0,64
Stress when preparing for the national exam	5	0,68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항 간 신뢰성을 측정한 결과 Cronbach's α 가 모두 0.60 이상이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신뢰할만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치위생과 재학생들의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해 χ^2 (Chi-square) 검증과 t-test(검증), 그리고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또한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 및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과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Correlation을 실시하였다.

연구 성적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총 120명 중 대학 입학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수시 2차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정시 27.5%, 일반전형 수시 1차 21.7%, 특별전형 15.0%, 농어촌 특별전형 2.5% 순으로 나타났다.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가 75.8%로 차지하였으며, 실업계는 24.2%이었다. 대학 내신 성적별로는 3.5~4.0 미만이 34.2%로 가장 많았다.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100점

3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90점 미만은 10.8% 순이었다.

2. 치위생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2.1. 치위생과 선택 동기

학생들이 치위생과를 선택한 동기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한 학생이 41.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전문직이므로' 32.5%, '적성과 흥미에 맞아서' 14.2%, 기타 11.7%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정시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하였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전문직이므로'를 선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하였고,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은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전문직이므로'를 선택하였으나 출신고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내신 성적별로는 4.0 이상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하였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전문직이므로'를 선택하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점 미만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치위생과 선택을 '전문직이므로'를 선택하였고, 120점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하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from objects of study

	Variable	Frequency(N)	Percentage(%)
Admission	The first non-scheduled admission	26	21.7
	The second non-scheduled admission	40	33.3
	Regular admission	33	27.5
	Early admission	18	15.0
	Special selection for those who live in rural areas	3	2.5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75.8
	Vocational high school(Special high school))	29	24.2
GPA (Grade Point Average) at university	Under 2.5	4	3.3
	2.5~less than 3.0	15	12.5
	3.0~less than 3.5	33	27.5
	3.5~less than 4.0	41	34.2
	4.0 or above	27	22.5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10.8
	90~less than 100	36	30.0
	100~less than 110	31	25.8
	110~less than 120	22	18.3
	120 or above	18	15.0
Total		120	100.0

Table 3. Motivations for selecting dental hygienics

Variable	Getting a job	Aptitude and Interest	Profession	The others	Total	$\chi^2(d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29(43.9)	11(16.7)	18(27.3)	8(12.1)	66(55.0)	8.23(6) 0.222
	Regular admission	15(45.5)	1(3.0)	12(36.4)	5(15.2)	33(27.5)	
	Early admission	6(28.6)	5(23.8)	9(42.9)	1(4.8)	21(17.5)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42(46.2)	14(15.4)	27(29.7)	8(8.8)	91(75.8)	5.81(3) 0.121
	Vocational high school	8(27.6)	3(10.3)	12(41.4)	6(20.7)	29(24.2)	
GPA (high school)	Under 3.0	4(21.1)	3(15.8)	8(42.1)	4(21.1)	19(15.8)	11.50(9) 0.243
	3.0~under 3.5	14(42.4)	3(9.1)	12(36.4)	4(12.1)	33(27.5)	
	3.5~under 4.0	16(39.0)	6(14.6)	13(31.7)	6(14.6)	41(34.2)	
	4.0 or above	16(59.3)	5(18.5)	6(22.2)	—	27(22.5)	
Mock test scores	Under 90	5(38.5)	1(7.7)	6(46.2)	1(7.7)	13(10.8)	11.19(12) 0.513
	90~under 100	12(33.3)	7(19.4)	10(27.8)	7(19.4)	36(30.0)	
	100~under 110	14(45.2)	3(9.7)	12(38.7)	2(6.5)	31(25.8)	
	110~under 120	10(45.5)	2(9.1)	6(27.3)	4(18.2)	22(18.3)	
	120 or above	9(50.0)	4(22.2)	5(27.8)	—	18(15.0)	
Total		50(41.7)	17(14.2)	39(32.5)	14(11.7)	120(100.0)	

2.2. 치위생과 전공 만족도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4>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81로, 학생들은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대학입학 전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내신 성적별로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내신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63$, $p<.05$).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120점 이상인 학생이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90점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치위생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으며,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99$, $p<.01$).

Table 4. Satisfaction with majoring in dental hygienics

Variable	N	Mean	SD	t(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6	3.76	0.61	3.06 0.051
	Regular admission	33	3.73	0.52	
	Early admission	21	4.10	0.62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3.85	0.58	1.23 0.221
	Vocational high school	29	3.69	0.66	
GPA (high school)	Under 3.0	19	3.53	0.61	3.63 0.015*
	3.0~under 3.5	33	3.67	0.54	
	3.5~under 4.0	41	3.95	0.59	
	4.0 or above	27	3.96	0.59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3.23	0.44	3.99 0.005**
	90~under 100	36	3.86	0.64	
	100~under 110	31	3.84	0.52	
	110~under 120	22	3.86	0.64	
	120 or above	18	4.00	0.49	
Total		120	3.81	0.60	

* $p<.05$, ** $p<.01$

Table 5. The level of recognition over dental hygienist

	Variable	N	Mean	SD	t(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6	3.71	0.58	4.01	0.021 [*]
	Regular admission	33	3.61	0.50		
	Early admission	21	4.05	0.67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3.77	0.60	0.91	0.364
	Vocational high school	29	3.66	0.55		
GPA (high school)	Under 3.0	19	3.68	0.67	0.27	0.849
	3.0~under 3.5	33	3.70	0.59		
	3.5~under 4.0	41	3.76	0.58		
	4.0 or above	27	3.81	0.56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3.62	0.51	1.49	0.210
	90~under 100	36	3.89	0.71		
	100~under 110	31	3.71	0.53		
	110~under 120	22	3.55	0.60		
	120 or above	18	3.83	0.38		
Total		120	3.74	0.59		

^{*} p<.05

2.3.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5>와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4로,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으며, 대학입학 전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4.01, p<.05).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내신 성적별로는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나 내신 성적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100점 사이의 학생이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가장 높았고, 110~120점 사이의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4. 국가시험 대비 스트레스원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가장 많이 받는 스트레스원

Table 6. Stress factors when preparing for the national exam

	Variable	pop quiz, oral test	Mid-term, Final exam	Study after school hours	Total	$\chi^2(d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9.1)	31(47.0)	29(43.9)	66(55.0)	12.51(4)	0.014 [*]
	Regular admission	8(24.2)	21(63.6)	4(12.1)	33(27.5)		
	Early admission	3(14.3)	13(61.9)	5(23.8)	21(17.5)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15(16.5)	55(60.4)	21(23.1)	91(75.8)	12.94(2)	0.002 ^{**}
	Vocational high school	2(6.9)	10(34.5)	17(58.6)	29(24.2)		
GPA (high school)	Under 3.0	2(10.5)	5(26.3)	12(63.2)	19(15.8)	14.59(6)	0.024 [*]
	3.0~under 3.5	3(9.1)	20(60.6)	10(30.3)	33(27.5)		
	3.5~under 4.0	5(12.2)	26(63.4)	10(24.4)	41(34.2)		
	4.0 or above	7(25.9)	14(51.9)	6(22.2)	27(22.5)		
Mock test scores	Under 90	—	5(38.5)	8(61.5)	13(10.8)	17.50(8)	0.025 [*]
	90~under 100	6(16.7)	14(38.9)	16(44.4)	36(30.0)		
	100~under 110	5(16.1)	17(54.8)	9(29.0)	31(25.8)		
	110~under 120	4(18.2)	15(68.2)	3(13.6)	22(18.3)		
	120 or above	2(11.1)	14(77.8)	2(11.1)	18(15.0)		
Total		17(14.2)	65(54.2)	38(31.7)	120(100.0)		

^{*} p<.05, ^{**} p<.01

Table 7. Stres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written examination

	Variable	N	Mean	SD	t(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6	4.23	0.65	0.58	0.560
	Regular admission	33	4.09	0.77		
	Early admission	21	4.10	0.62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4.10	0.68	-1.96	0.052
	Vocational high school	29	4.38	0.62		
GPA (high school)	Under 3.0	19	4.42	0.61	1.43	0.238
	3.0~under 3.5	33	4.21	0.74		
	3.5~under 4.0	41	4.10	0.58		
	4.0 or above	27	4.04	0.76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4.31	0.63	0.72	0.583
	90~under 100	36	4.25	0.65		
	100~under 110	31	4.10	0.60		
	110~under 120	22	4.00	0.82		
	120 or above	18	4.22	0.73		
Total		120	4.17	0.68		

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이 54.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야간학습 31.7%, 수시시험 14.2%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야간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대학입학 전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51$, $p<.05$).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은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야간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출신고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2.94$, $p<.01$).

내신 성적별로는 3.5~4.0 미만인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야간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내신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4.59$, $p<.05$).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국가시험에 대비하여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야간학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며,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chi^2=17.50$, $p<.05$).

2.5.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1)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7>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4.17로, 학생들은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출신고교별로는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내신 성적별로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일수록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내신 성적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점 미만인 학생이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110~120점 미만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8>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2.31로, 학생들은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수시로 입학한 학생이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이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나 출신고교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8. Stress with regard to the national practical examination

	Variable	N	Mean	SD	t(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6	2.35	1.48	0.06	0.940
	Regular admission	33	2.27	1.35		
	Early admission	21	2.24	1.34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2.43	1.42	1.66	0.099
	Vocational high school	29	1.93	1.33		
GPA (high school)	Under 3.0	19	2.32	1.45	0.78	0.510
	3.0~under 3.5	33	2.52	1.50		
	3.5~under 4.0	41	2.05	1.40		
	4.0 or above	27	2.44	1.31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2.38	1.39	0.09	0.984
	90~under 100	36	2.31	1.62		
	100~under 110	31	2.29	1.42		
	110~under 120	22	2.18	1.29		
	120 or above	18	2.44	1.25		
Total		120	2.31	1.41		

내신 성적별로는 3.0~3.5 사이의 학생이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3.5~4.0 사이의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120점 이상인 학생이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110~120점 사이의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2.6. 국가시험 대비 스트레스

1) 국가시험 대비 과목별 스트레스 정도

학생들의 국가시험 대비 과목별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Table 9>와 같다.

국가시험 대비 과목 중에는 평균이 ‘구강생물학개론’이 4.5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치과임상학’ 4.11, ‘의료관계법규’ 3.70, ‘구강위생학개론’ 3.55 순으로 나타났으며, ‘구강방사선학개론’이 3.18로 가장 낮았다.

2)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 정도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스트레스 정도에 대해 살펴

본 결과는 <Table 10>과 같이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81로, 학생들은 국가시험 대비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입학 전형별로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정시로 입학한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대학입학 전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3.71$, $p<.05$). 출신고교별로는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이 인문계를 졸업한 학생보다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으며, 출신고교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61$, $p<.05$).

내신 성적별로는 3.0 미만인 학생이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4.0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내신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5.64$, $p<.01$).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점 미만인 학생이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고, 120점 이상인 학생은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낮았으며, 모의고사 성적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F=8.30$, $p<.001$).

Table 9. The level of stress depending on subjects when preparing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Variable	Mean	SD
An introduction to oral biology	4.52	0.62
An introduction to oral radiology	3.18	0.87
Medica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3.70	0.78
Dental clinical sciences	4.11	0.71
An introduction to oral hygiene	3.55	0.89
Total	3.81	0.46

Table 10. Stress regarding subjects in preparation for the national examination

	Variable	N	Mean	SD	t(F)	p
Admission	Non-scheduled admission	66	3.87	0.47	3.71	0.027*
	Regular admission	33	3.63	0.41		
	Early admission	21	3.91	0.45		
Alma mater	Academic high school	91	3.75	0.48	-2.61	0.010*
	Vocational high school	29	4.00	0.35		
GPA (high school)	Under 3.0	19	4.11	0.50	5.64	0.001**
	3.0~under 3.5	33	3.82	0.48		
	3.5~under 4.0	41	3.82	0.37		
	4.0 or above	27	3.57	0.43		
Mock test scores	Under 90	13	4.20	0.40	8.30	0.000***
	90~under 100	36	3.98	0.33		
	100~under 110	31	3.77	0.51		
	110~under 120	22	3.59	0.41		
	120 or above	18	3.52	0.39		
Total		120	3.81	0.46		

* p<.05, ** p<.01, *** p<.001

총괄 및 고안

스트레스는 복잡한 생활환경 속에서 현대인들이 겪게 되는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현상의 하나이다. 인간의 삶 자체가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스트레스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생애의 주기에 있어서 각 시기별로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의 양상과 정도는 각각 다르다. 특히 한국의 대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교육과정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입학과 더불어 가정이나 사회 그리고 대학으로부터 스스로 책임지며,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생으로서의 요구와 기대를 강하게 받고 있다³⁾. 특히 치위생과를 전공하는 학생들의 경우 국가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으로써 겪는 스트레스는 상당하다 볼 수 있다. 이에 치위생과 학생들이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의 요인을 파악하고 어떠한 요인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대학 입학전형별로는 일반전형 수시 2차가 33.3%로 가장 많았으며, 출신고교별로는 인문계가 75.8%, 실업계는 24.2%였다. 대학 내신 성적별로는 3.5~4.0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모의고사 성적별로는 90~100점이 30.0%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입학 전 치과근무 여부별로는 입학 전에 치과에 근무한 적이 없는 학생이 79.2%로 근무한 적이 있는 학생 20.8%보다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학생이 60.8%, 학기 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이 73.3%로 나타났다.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와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치위생학을 선택한 동기는 “치위생과 졸업 후 취업이

잘 되므로”를 선택한 학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이¹⁴⁾와 박¹⁾의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며,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1,12,14)}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이다.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적으로 좋은 학생일수록 높았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는 5점 만점 중 전체 평균이 3.74로 학생들은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으며,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가 높았다.

국가시험 대비과정에서의 스트레스원으로는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았다. 이는 정 등⁹⁾의 연구에서 3학년 학생이 학업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유사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국가시험 중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은 반면 실기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낮았다. 국가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¹⁴⁾와 박과 이¹⁵⁾의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학생들의 국가시험 스트레스는 주로 이론시험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어진다. 국가시험 대비 과목 중에 구강생물학개론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았으며 구강방사선학개론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이 결과는 과목별 교수자의 특성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한계성이 있다. 전체적으로 학생들은 국가시험 과목들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았다. 특히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과 실업계를 졸업한 학생 그리고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좋지 않은 학생에서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시험을 앞둔 치위생과 학생

들의 치위생과 선택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그러나 학습 중 기본평가에 해당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았고, 국가시험 중 이론시험에 대한 스트레스와 국가시험 과목에 대해서도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표본 수집에 있어 지방의 일부 대학에 국한되어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화된 공통적 특징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향후 좀 더 폭 넓은 대상을 선정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그 대상자를 학년간의 비교를 통해 보다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지방에 있는 유사한 환경의 대학생들에게 적용할 시 국시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치위생과 학생들이 국가시험을 통해 받는 스트레스의 요인을 밝히는데 주력했다. 향후 앞서 열거한 추가적 연구를 통해 이러한 스트레스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의 모색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국가시험이 주는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2012년 2월 D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의 방법에 의해 2011년 11월부터 2011년 12월 2일까지 실시되었다. 분석에 총 120부가 사용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위생학 전공 만족도는 내신 성적($p < .05$)과 모의고사 성적($p < .01$)이 좋은 학생일수록 치위생학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인식도는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이 다른 학생보다 인식도가 높았다($p < .05$).
2. 국가시험 관련 스트레스 원 중 중간·기말고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이 54.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가시험에 대비 야간학습의 스트레스는 일반전형 수시 입학생($p < .05$), 실업계 졸업생($p < .01$),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p < .05$), 모의고사 성적이 좋은 학생($p < .05$)들이 다른 학생보다 많이 받았다.
3. 국가시험 스트레스는 이론시험(4.17)이 실기시험(2.13)보다 높았다.
4. 국가시험 과목별로는 구강생물학개론이 4.52로 가장 높았다. 그리고 특별전형 입학생($p < .05$)과 실업계 졸업생($p < .05$), 모의고사 성적이 대체로 좋지 않은 학생($p < .001$)이 다른 학생보다 국가시험 과목에 대한 스트레

스가 높았다.

결론적으로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치위생과 선택 및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지만, 학습 중 기본평가에 해당하는 중간·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시험 중 이론시험과 국가시험 해당과목에 대한 스트레스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ference

1. Park MY. A study on satisfaction and stress factor of clinical practice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 Dent Hyg Sci 2006; 6(4): 243-9.
2. Hong SM, Kim HK, Ahn YS. A study on the stres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ping and somatization for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09; 9(2): 219-24.
3. Lee JH, Jeon ES. A study on causes of stress experienced by party students of dental hygiene department during clinical training. J Dent Hyg Sci 2009; 9(1): 137-43.
4. Jung EJ, Yoon MS, Youn HJ. A study on stressors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i 2012; 12(2): 131-7.
5. Go KB. The prevalence of psychosomatic disorders and stress perception in medical inpatients. J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 1998; 525-34.
6. Kang JH. An analysis study on stress factor of nursing students during preparing examination for korea registered nurse licence. Gyeonggi: Kyung Bok College; 2001: 537-55.
7. Chu JP, Min BI, Park SG. Perceived sources and coping methods of stress in a popul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J Stress Res 2001; 9(2): 41-50.
8. Ang RP, Huan VS.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uicidal ideation: testing for depression as a mediator.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2003; 37: 133-43.
9. Lee JH, Kim HY. The effects of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perceived health state on the stress of adult examinee. J Korean Acad Psych Mental Health Nurs 2007; 16(2): 174-80.
10. Cho YH.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 by the grade of stress in the nursing students-effect of national examination on str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5; 19(1): 64-73.
11. Lim MH. A study on stress factors of testees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e certification examination. J Korean Soc Dent Hyg 2010; 10(4): 735-44.
12. Heo NS, Park JH, Kim EH. Who will take national examination soon and countermeasure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9; 9(2): 57-69.
13. Nam YO, Ju OJ, Kang HS, Lee SL, Jang SH, Kwag JS, et al.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perceived stress level and stress-coping patten during scaling practice, *J Korean Acad Dent Health* 2007; 31(4): 580-92.
14. Lee SY, A study on the stressors and coping patterns of dental hygiene students preparing for the national dental hygienist certification exam, *J Korean Acad Dent Hyg* 2010; 12(4): 367-82.
15. Park IS, Lee SH, A study on the stressors and coping patterns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J Korean Acad Dent Hyg Educ* 2008; 8(4): 251-63.